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8주일
제32권 37호(나해) 2012.8.12

[묵상]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저자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게다가 살아있는 빵이라고?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저희끼리 수군거립니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준다고요?
그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요?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요?

진실로 당신은 저희로 하여금
수군거리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들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 김씨니 클라라 & 김준호 프란치스코 가정
주 일	(연) 이경용 야고보, 엄은섭 도로테오, 박영춘 안토니오, 고준희 제임스, 강용운 요셉, 김풍길 바오로, 나상옥, 이성권 요셉 & 박은순 마리아
낮 미사	(생) 이석진 가브리엘 & 이명자 마가렛, 이윤조 클라라, 김영숙 헬레나, 안나희 최원들, 이준영 마르코 & 이제이미 크리스티나, 오영섭 스테파노 & 윤영훈 바오로 & 금영도 베드로 & 김용 스테파노(남자주 남성제35차꾸르셀토수장자들) 이형삼 요셉 & 이해숙 요세피나, 정혜경 카타리나, 김형준 요한, 김세실, 정인식 베드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상권(1 kings) 19,4-8

화답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사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들때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4.30-5.2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 음 요한(John) 6.41-51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쁨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88	188	241
봉헌	255	255	268
성체	304	304	301
파견	197	197	187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성인들과 성경 해석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그의 저술들에서 자신의 신비적 체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성경의 표상들을 사용하며,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은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알려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성경, 특히 코린토 1서 12장과 13장을 파고들던 가운데 사랑이 자신의 소명임을 발견하였고, 성녀 자신이 성경의 매력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복음에 눈길을 돌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삶의 향기를 느끼고,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성인들은 하느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줄기들과 같습니다. 로울라의 이냐시오 성인의 진리 추구와 영적 식별, 요한 보스코 성인의 청소년 교육에 대한 열정,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선물이며 임무인 사제직의 위대함에 대한 인식,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성인이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되었던 것,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성인이 성덕의 보편적 성소를 설립했던 것, 콜카타의 복자 테레사가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해 하느님 자비의 선교사가 되었던 것, 그리고 가르멜 회원이었던 십자가의 성녀 테레사 베네딕타(에디트 슈타인)로부터 자그레브의 대주교 복자 일로이시오 스테파니 추기경까지 나치즘과 공산주의 순교자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49). 하느님 말씀으로 감도된 성덕은 어떤 식으로, 하느님의 말씀이 예언자의 삶 자체를 사용하시는 예언 전통 안에 자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의 성덕은 아무도 간과할 수 없는 성경 해석이 됩니다. 성경 저자들을 감도하신 성령께서, 성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삶을 바치도록 하신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하느님 말씀의 살아 있고 힘 있는 해석에 이르기 위한 길이 됩니다.

우리는 제12차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정기 총회 기간 중에 하느님 말씀과 성덕의 연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보았습니다. 10월12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는 네 명의 새 성인들이 시성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선교회 설립자인 가에타노 에리코 신부, 스위스에서 태어나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베르나르다 뢰틀러 수녀, 인도에서 태어난 첫 성녀인 원죄없으신 잉태의 알폰사 수녀, 그리고 에콰도르의 젊은 평신도 여성인 나르시사 데 헤수스 마르티요 모란이었습니다. 이 성인들의 전구로, 우리의 삶이 씨를 뿌리시는 하느님께서 “삼십 배, 육십 배, 백배”로 성덕의 열매를 맺도록 말씀의 씨를 뿌리실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시기를(마르 4,20) 주님께 청합시다. <◆계속>

돈으로 살 수 없는 빵

예비신자 교리반에서 대학생에게 “대학을 졸업하면 무얼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직장부터 구한 다음 결혼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엔?” “돈 벌어 사회사업도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엔?” “그런 다음엔 은퇴하고 아내랑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엔?” “신부님, 그런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죽는거지요.” “그럼, 학생은 죽기 위해 대학에 다니는군요.”

학생의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잠시 지나가는 세상과 생명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한 마디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이 세상이 주는 물질의 빵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구하라고 강조하신다. 생명의 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영성체하는 시간에 꼬마 아이가 엄마 것을 뺏으려다가 꿀밤을 한 대 맞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다음 주일에 이 녀석이 현금을 했는데도 성체를 받지 못하니 까 “엄마, 나도 돈 냈는데 왜 안 줘.” 하며 떼를 썼다. 이 아이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으로 알고 있었다.

사실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다. 믿음도 희망도 사랑도 평화도 돈으로 살 수 없다. 천국이나 영원한 생명도 돈 주고 살 수 없다. 그 꼬마 아이는 돈 주고 성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다.

성사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성사가 성체성사이다. 구약에서부터 성체성사를 준비하기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냈고 오늘 제1독서에서 처럼 엘리야

예언자가 음식으로 힘을 얻었다. 신약에선 예수님이 빵집이라는 뜻을 지닌 베들레헬에서 태어나 빵을 많이 하는 기적을 여러 번 했으며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셨다. 성체성사의 중요성 때문에 성체 신심 세미나와 성체강복이 있고 성체조배를 강조한다.

한터위에 시원한 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데 누군가가 건배 제의로 ‘소화제’라고 외쳤다.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영성체할 때마다 예수님과 소통하고 화합한다. 예수님과 소통하고 화합한 다음 감사 기도와 더불어 찬양을 드린다면 그 예비신자 대학생처럼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 6, 51) 오늘 복음의 말씀이다. 성체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최경용 배드로 신부 / 부산교구 가야성당 주임

내가 먹고 있는 것들

술을 먹고 밥을 먹고 나이를 먹습니다.
 즐겁자고 먹고, 살아야해서 먹고,
 살아있기 때문에 먹습니다.
 지은 죄가 많은 탓에 겁도 먹고, 욕도 만만찮게 먹고
 요즘엔 더위까지 먹습니다.
 먹지말아야 좋을 것들까지 참 많이도 먹고 있습니다.
 먹고 난 후 하나같이 속상한 것들,
 이제라도 하나씩 줄여보자
 마음 단단히 먹습니다.

◆이영 아녜스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박희자 마리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권오상 바오로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박수진 보나	권순길 체칠리아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구역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8월

8월15일(수)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며 '광복절'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늘나라로 불림을 받아 오르신 것을 기념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날입니다. 의무 대축일이므로 교우들은 미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후 성모회가 마련하는 '샌드위치나눔'이 있습니다.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2012년 첫 수혜자 시상 및 축하식

- 운영위원 : 본당 신부님 포함 8명
- 선발된 후보자 11명 : 김서영(엘리아스), 김지수(보나), 박윤지(안나), 송병찬(요한), 임정빈(보스코), 오수지(마카엘라), 유 존(요한), 윤캐서린(카타리나), 정혜정(젤마), 한알렉스(라파엘), 한지혜(소피아) -가나다 순-
- 장학금 수여식 : 오늘 주일(12일) 낮미사중
축하식 : 오후 5시30분(부모님과 관계자들은 부부동반 참석바랍니다.)

◆ 자동차 축복식

- 일시 : 오늘 주일(12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12시50분경 사제관 앞마당으로 오세요.

◆ 예비자 교리반 개설 및 신자 재교육

- 환영식 : 9월2일(주일) 낮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 성전
- 세례식 예정 : 2013년 부활절
- 교리지도 : 이장환 마르티노 본당 신부님

◆ M.E.소식

- 남가주 ME 첫주말 참가부부 신청받습니다.
* 일시 : 9월14일(금)~16일(주일) 2박3일
- 남가주 ME 30주년 책자발행 협조건 : 1차(1982년)~43차(1999년) 수강자들의 단체사진, 명단, 행사사진 수집
- 문의 : 본당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올리아 ☎(310)780-9055

◆ 레지오 마리에 미션 방문

- 일정 : 8월18일(토) 오전 8시 성당출발
- 장소 :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미션
- 문의 : 꾸리아단장 남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 남가주 제35차 남성 꾸르실료 참가자들을 위한 기도

- 백삼위 본당에서 올해 남가주 제35차 남성 꾸르실료에 4명의 수강자와 1명의 봉사자가 참가합니다.
- 일정 : 8월23일(목)~26일(주일), 엘 카멜로 피정의 집
- 수강자 : 오영섭 스테파노, 윤영훈 바오로, 금영도 베드로, 김용 스테파노 * 봉사자 : 현석주 아오스딩
- 문의 :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홍보분과에서 각단체 임원연락처 정리, 자료 보내주세요.

- 대상 : 사목회, 각단체 임원연락처(전화번호, e메일)
- 보낼곳 : 본당 홍보분과 103skcc@gmail.com
- 본당 홈페이지(http://103skcc.org)의 알림게시판 참조

◆ 성령채신대회 CD 판매합니다

- 제25회 남가주 성령채신대회의 CD구입을 원하는 분은 사무실 또는 본당 성령기도회장(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에게 문의하십시오. * 가격 \$20

◆ 성모회 모임 변경

- 일시 : 8월15일(수) 성모승천대축일 저녁미사후
- 문의 : 성모회장 최길숙 요세피나 ☎(310)738-4788

◆ 성당 주차장에서 지켜야할 공중도덕

지난 주일(5일) 낮미사중 축구장 골대(남쪽)뒤에 주차해 놓은 검은색 벤츠 SUB(ML305, 번호판 5KJB798)의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장면을 목격하신 분이 있으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문을 열고 내릴 때 옆차에 상처를 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서로가 주의해주시고, 피치 못한 경우엔 연락처를 상대방차에 남겨 놓는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12일(주일) : 토런스 남 2,3반(비빔밥/콩나불국 \$3)
- 8월19일(주일) : P.V. 3반(회덮밥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병학	김선제	김성현	김양금	김영길	김영희
	김옥보	김원모	김주광	김학경	김현숙	노찬술
	노혜숙	민기남	민순선	민형기	박씨니	박영룡
	박인식	박정희	박종열	방정복	배기엽	배태임
	석순영	송기철	안재만	엄정자	오신재	원건희
	윤선희	이근모	이남현	이미경	이상석	이인두
	이종선	이형삼	이효세	장정진	전정일	정혜영
	조영희	주대중	주용순	최태훈	황지영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4,410					
미사헌금 : \$2,698	2차헌금 : \$1,151					
성전헌금	김병학	김선제	김양금	김영길	김옥보	김원모
	김주광	김현숙	노찬술	노혜숙	민기남	민순선
	박씨니	박영룡	박인식	박정희	박종열	방정복
	석순영	송기철	안재만	엄정자	원건희	윤선희
	이근모	이남현	이상석	이형삼	이효세	장정진
	전정일	정혜영	조영희	주대중	최태훈	황지영
	영희가보라					
	합계 : \$2,530					
감사헌금 : 이정현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한국학교 2012/2013학년도 등록

- 등록시간 : 주일학생미사 11시미사 전후
-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 대상 K~12학년, SAT II

교사 모집 : 대상 - 보조교사

*문의 : 김화경 스틸라 한국학교교장 ☎(310)464-7490

학생미사(주일 오전 9시30분)에 빠지지 맙시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여름방학중입니다. 방학중에도 주일 학생미사는 그대로 봉헌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성지순례 및 관광

- 순례일정 : 10월13일(토)~21일(주일) 8박9일
- 순례지 : 새남터, 절두산, 솔피, 공세리, 언양, 풍수원, 배문, 피아골, 연풍성지 등
- 관광지 : 설악산, 남해안, 경주, 청계천, 전주 등
- 문의 : 김예란 캐롤라인 ☎(714)883-7540

남가주 소식

'청실 홍실' 만남의 장

- 일시 : 오늘주일(12일) 오후 5시, 장소 : LA 옥스포드 호텔
- 주관 : 남가주한인종신부제협의회(김재동 요한 부제)
- 신청 및 문의 : 정시문 사무국장 ☎(714)530-3111

박선영(데레사) 전국회의원 간증 행사

- 일시 : 8월16일(목) 오후 7시 * 장소 : LA 성 바실 성당
- 주제 : "주님의 부름에 답하리라."
- 박선영 전의원(자유선진당)은 현재 동국대 법대교수로 재직중이며 북한인권운동(물망초재단)에 주력
- 문의 : 간증준비위 변홍진 토마스 (213)389-1536

장애인 후원을 위한 '1일 점심과 차'

- 일시 : 8월18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인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Bl.)
- * 메뉴 : 바빔밥(1인당 \$10)
- * 문의 : ☎(213)387-3301 김윤희 소화데레사 수녀

성 이냐시오 19번 영신수련 피정자 모집

- 일상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으로의 초대.
- 기간 : 2012년 9월~2013년 6월
- 회비 : \$700(도네이션으로 봉헌됩니다.)
- 주관 : 로올라 영성센터(오렌지카운티)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데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남명자 데레사 365-2542 8/14(화) 반미사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석안젤라, 민안나 634-9631 8/11(토) 오후 7시 성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8/15(수)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8/11(토) 오후 7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심재은 클레멘스 999-5808 8/11(토) 오후 6시 성당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진영선 크리스티나 781-0856 8/8(수)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송기철 루카 974-2857 8/17(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미경 스테파니아 634-6923 8/7(화) 오전 10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8/21(화) 반미사 오후 7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최미열 클라라 895-8624 8/11(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겐마 818-640-3656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8/19(주일) 오전 10시 월슨파크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박의혜 세실리아 541-0700 8/17(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8/9(목) 오후 8시 성당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8/19(주일) 오후 2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반나영 세실리아 404-206-2911 8/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주 단체 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8월15일은 성모님께서 하늘로 불러올려짐을 경축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복된 날에 주님의 은총이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가득히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은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의 승천 대축일에 우리 조국은 일체 치하를 끝내고 광복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희망의 표지입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구원받아 하느님 영광 안에 들 수 있다는 희망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모님은 아직도 당신의 모성애로 나그넷길을 걸으며 위험과 고통을 겪는 우리 신앙인들을 돌보시며 행복한 고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교회헌장 62항)

우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기뻐하며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우리 사회의 참 평화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참 평화가 목마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간의 대립과 긴장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최고를 나타냅니다. 또한 출산율은 세계최하위국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또한 극단적인 양극화의 삶, 경기침체, 가정의 붕괴, 생명경시 사상 등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러운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와 경제우선주의가 모든 것의 해결이라는 유혹에 빠져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가치관의 혼란을 부추기고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여 모래알처럼 서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일치하여 평화롭게 어우러져 한가족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소통하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깊은 인식과 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차이와 다름을 간직한 채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럴때 비로소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찌 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물고 다니”(이사 11,6)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참 평화는 하느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이 몸소 실천하신 사랑의 실천과 나눔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불안을 극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이룹시다. 세상에 소통과 일치, 공존을 통해 참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평화의 도구로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중요한 책무입니다. 신앙인들은 세상 안에서 평화와 정의의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며 한편으로는 민족의 비극으로 인해 갈라진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여건으로 남북한 상호교류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문제는 폭력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남북한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양편이 서로 노력해야 하고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와 도움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민족화해 문제는 남북한 정부뿐 아니라 종교, 민간단체 등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이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대화를 시도하여 이 땅이 분열과 불화의 깊은 상처를 딛고 사랑과 일치, 화해의 땅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성모님의 큰 사랑 속에 우리 사회의 불안과 미움, 고통과 갈등 등 삶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모두 용해되어 사랑과 평화가 흘러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북녘땅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012년 성모 승천 대축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